

연금시장 동향 및 전망 : 퇴직연금

홍 원 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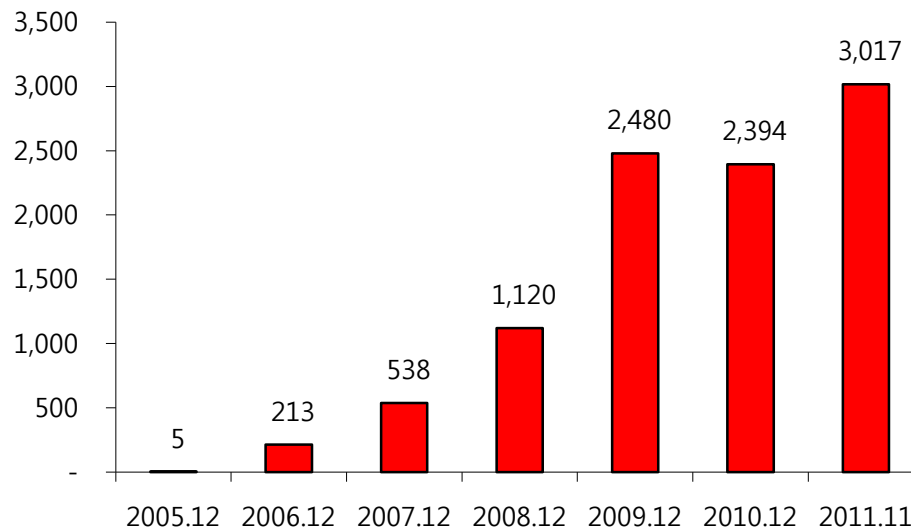
펀드·연금실 연구위원



퇴직연금 가입자

- ❖ 2011년 11월말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의 33.1%인 총 302만 명
 - DB형 208만 명(68.8%), DC형 86만 명(28.7%)

가입자 증가추이



가입자 현황

| | 근로자수(%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DB형 | 2,076,223 (68.8) |
| DC형 | 864,341 (28.7) |
| IRA특례 | 76,437 (2.5) |
| 합계 | 3,017,001 (100.0) |

주 : DB 가입자 수의 경우, 복수계약 체결로 인한 중복가입자를, 2010년 5월 이전에는 중복수치로,
2010년 6월부터는 순수통계로 작성한 수치임

자료: 금융감독원

퇴직연금 사업장

- ❖ 2011년 11월말 현재 도입사업장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(1,507,158개소)의 8.7%인 130,755개소가 퇴직연금제도 도입
 - 사업장 규모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74.6%로 가장 높고 4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4.2%로 가장 낮음
- ❖ 사업장 수 기준으로는 DC형이 DB형보다 많고,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DB형의 도입 비중이 높음
 - 사업장 수는 DC형 52,810개소(40.4%), DB형 49,301개소(37.7%), IRA 기업형 26,105개소
 - DB형의 비중은 소기업(29인 이하)은 37.7%로 상대적으로 낮고, 대기업(300인 이상)은 66.6%로 높음

퇴직연금 사업장 규모별 도입 현황

(단위: 개소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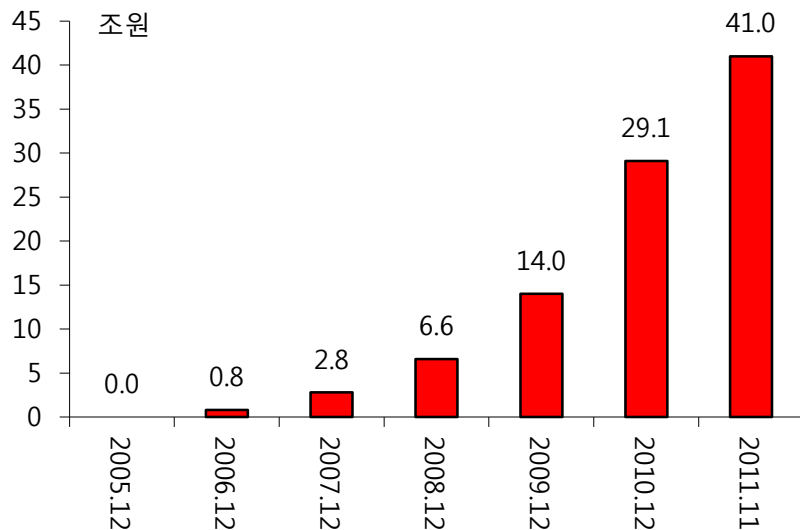
| | 4인 이하 | 5~9인 | 10~29인 | 30~99인 | 100~299인 | 300~499인 | 500인 이상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①도입 사업장수 | 40,203 | 33,720 | 35,814 | 15,402 | 4,122 | 658 | 836 |
| ②전체 사업장수 | 963,366 | 313,960 | 167,033 | 50,007 | 10,309 | 1,363 | 1,120 |
| 비율(①/②)(%) | 4.2 | 10.7 | 21.4 | 30.8 | 40.0 | 48.3 | 74.6 |

자료: 고용노동부

퇴직연금 적립금 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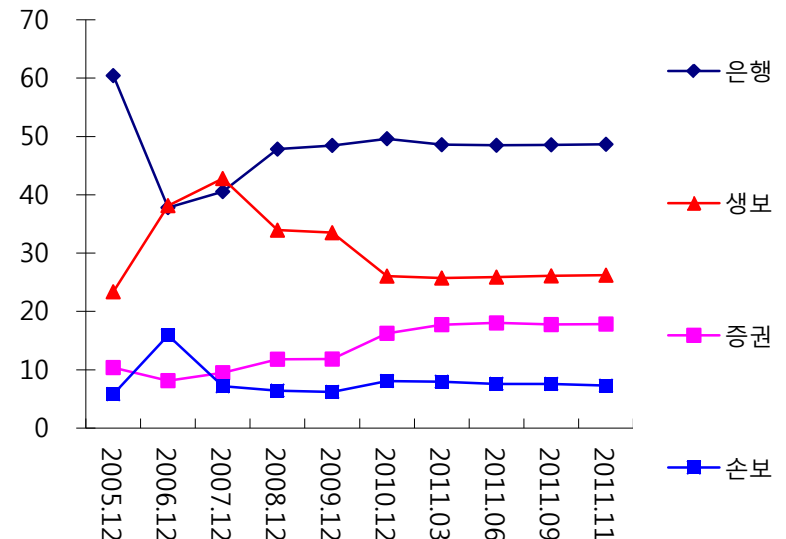
- ❖ 2011년 11월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0조 9,530억 원
 - 금융권역별 퇴직연금시장 점유율(적립금 기준)은 은행, 보험사, 증권사 순이며, 은행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움
- ❖ 퇴직금추계액(128.5조 추정*)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29.2%
 - 전체 상용근로자 수(9,125,795명) X 월평균급여(2,270,303원) X 평균근속연수(6.2년)

퇴직연금 적립금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

금융 권역별 시장점유율 현황



퇴직연금 적립금 [2]

❖ 적립금 비중은 모든 권역에서 DB형의 비중이 가장 높음

- 보험사의 경우 DB형이 80% 이상(생보 85.7%, 손보 86.6%)
- 증권사와 은행의 경우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DC형과 개인형 IRA의 비중이 높음

퇴직연금 권역별 적립금 규모 현황

(단위: 억원, %)

| 구 분 | | 합계 | DB | DC | IRA 특례 | 개인형 IRA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적립금 (비율) | | 409,530 (100.0) | 296,835 (72.5) | 73,066 (17.8) | 5,880 (1.4) | 33,748 (8.3) |
| 업권별 | 은행 | 199,288 (100.0) | 125,154 (62.8) | 45,731 (22.9) | 5,765 (2.9) | 22,638 (11.4) |
| | 생보 | 107,364 (100.0) | 91,999 (85.7) | 10,634 (9.9) | 92 (0.1) | 4,641 (4.3) |
| | 손보 | 29,746 (100.0) | 25,753 (86.6) | 2,606 (8.8) | 7 (0.0) | 1,380 (4.6) |
| | 증권 | 73,045 (100.0) | 53,929 (73.8) | 14,015 (19.2) | 14 (0.0) | 5,088 (7.0) |
| | 근복공단 | 86 (100.0) | 0 (0.0) | 81 (93.9) | 3 (3.8) | 2 (2.3) |
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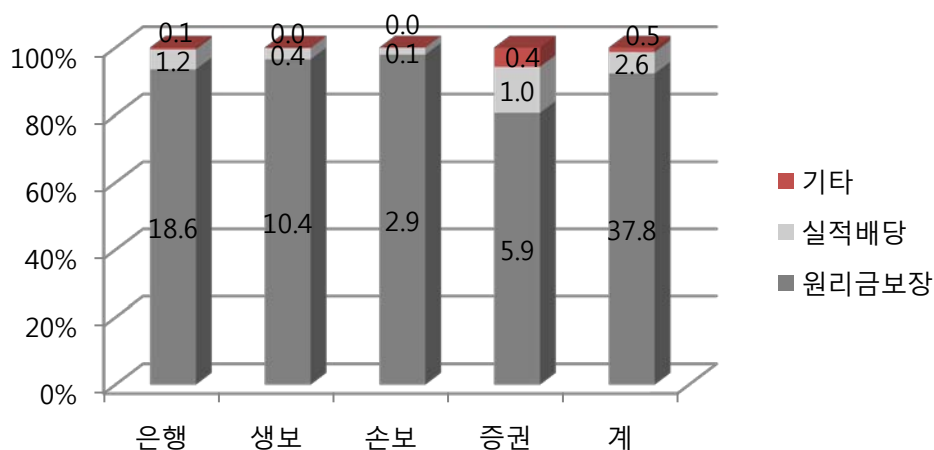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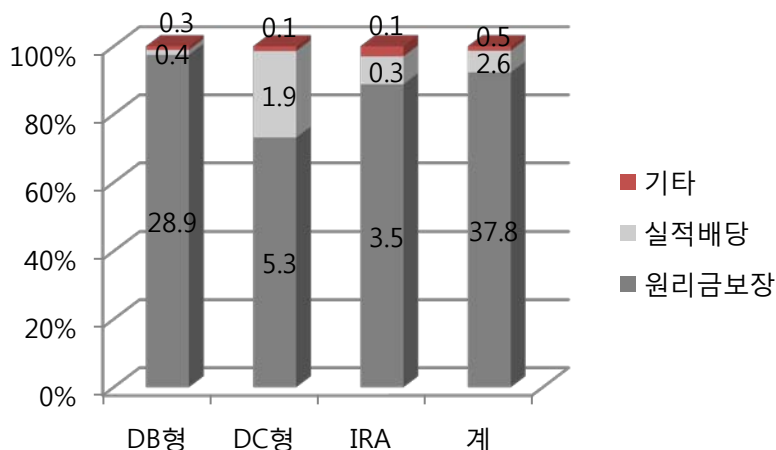
퇴직연금 적립금 운용

❖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2.3%(37.8조원)이며, 예금 상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(원리금보장형의 56.7%)

- DB형의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7.5%로 DC형(73.2%)에 비해 안전자산 비중이 높음
- 보험사는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비중이 가장 높고, 증권사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
- 보험사는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비중이 가장 높고(생보 96.5%, 손보 97.9%), 증권사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(13.7%)
- 1년 이하 상품비중이 79.9%로 단기 상품 위주 운용

퇴직연금 제도 유형별 / 권역별 적립금 운용

(단위:조원, %)



자료: 금융감독원

국내 퇴직연금의 특징

❖ 퇴직금 제도와 병존

- 퇴직연금 제도 도입 촉진: 재원 마련,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인식 등
- 퇴직연금 제도 확산 지체: 세제혜택 등 차별성 부족, 일시금 선호, 중도인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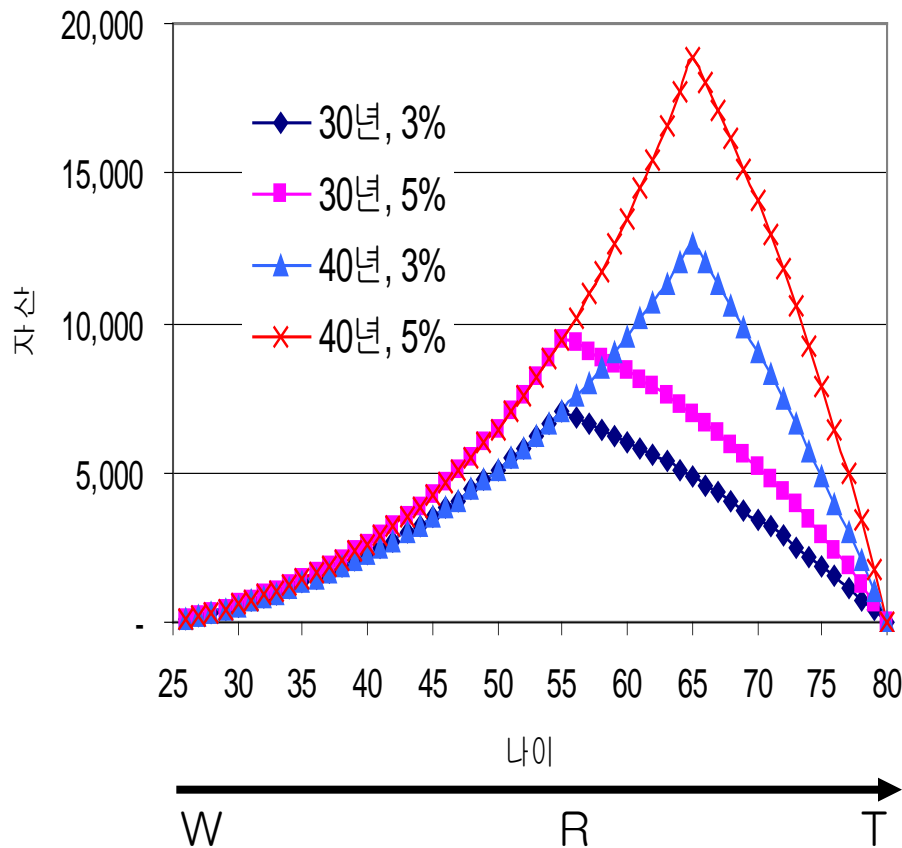
❖ 일시금을 확정,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

❖ DB형 중심의 퇴직연금

❖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자산운용

❖ 은행 주도

퇴직 자산의 축적과 인출



○ 근로기간 (투자기간)

→ 조기입직, 실업방지, 정년 연장

→ 중간정산 방지

○ 투자수익률

○ 연금화

○ 적용확대: 퇴직연금으로 전환

○ 추가납입

연금화 가능성

❖ 2011년 11월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4,604명의 퇴직자 중 일시금 수급자는 4,604명(96.4%), 연금 수급자는 170명(3.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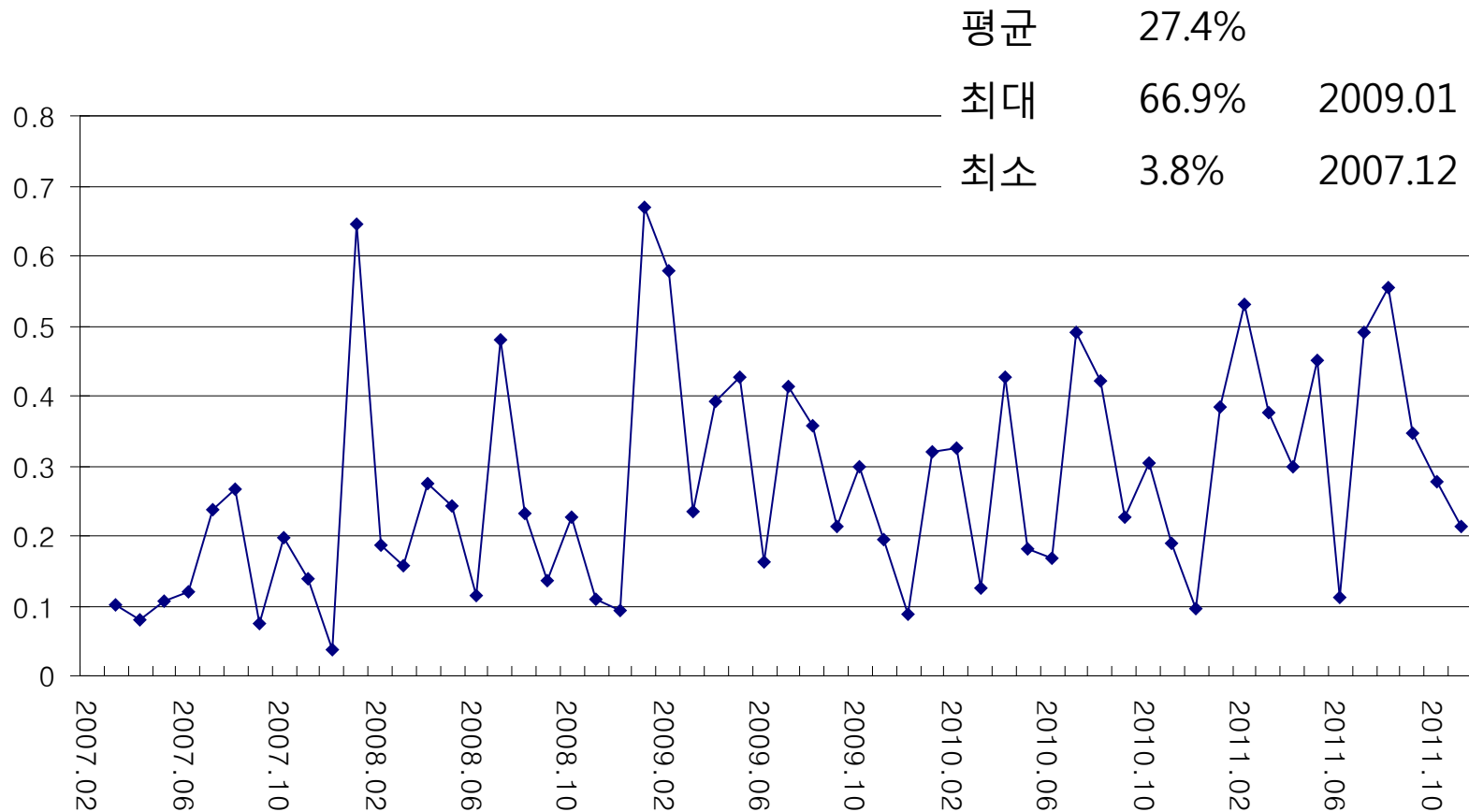
- 퇴직급여 금액이 연금으로 받기에는 너무 작음
 - 55세 이상 일시금 수급자의 1인당 퇴직급여 997만원
- 일시금 세제가 관대함

(단위: 명, 억원)

| | 일시금 | | 연 금 | | 합 계 | |
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|--------|-------|
| | 수급자수 | 금액 | 수급자수 | 금액 | 수급자수 | 금액 |
| 55세미만 | 48,445 | 2,169 | - | | 48,445 | 2,169 |
| 55세이상 | 4,604 | 459 | 170 | 2 | 4,774 | 461 |
| | 53,049 | 2,628 | 170 | 2 | 53,219 | 2,630 |

자료: 금감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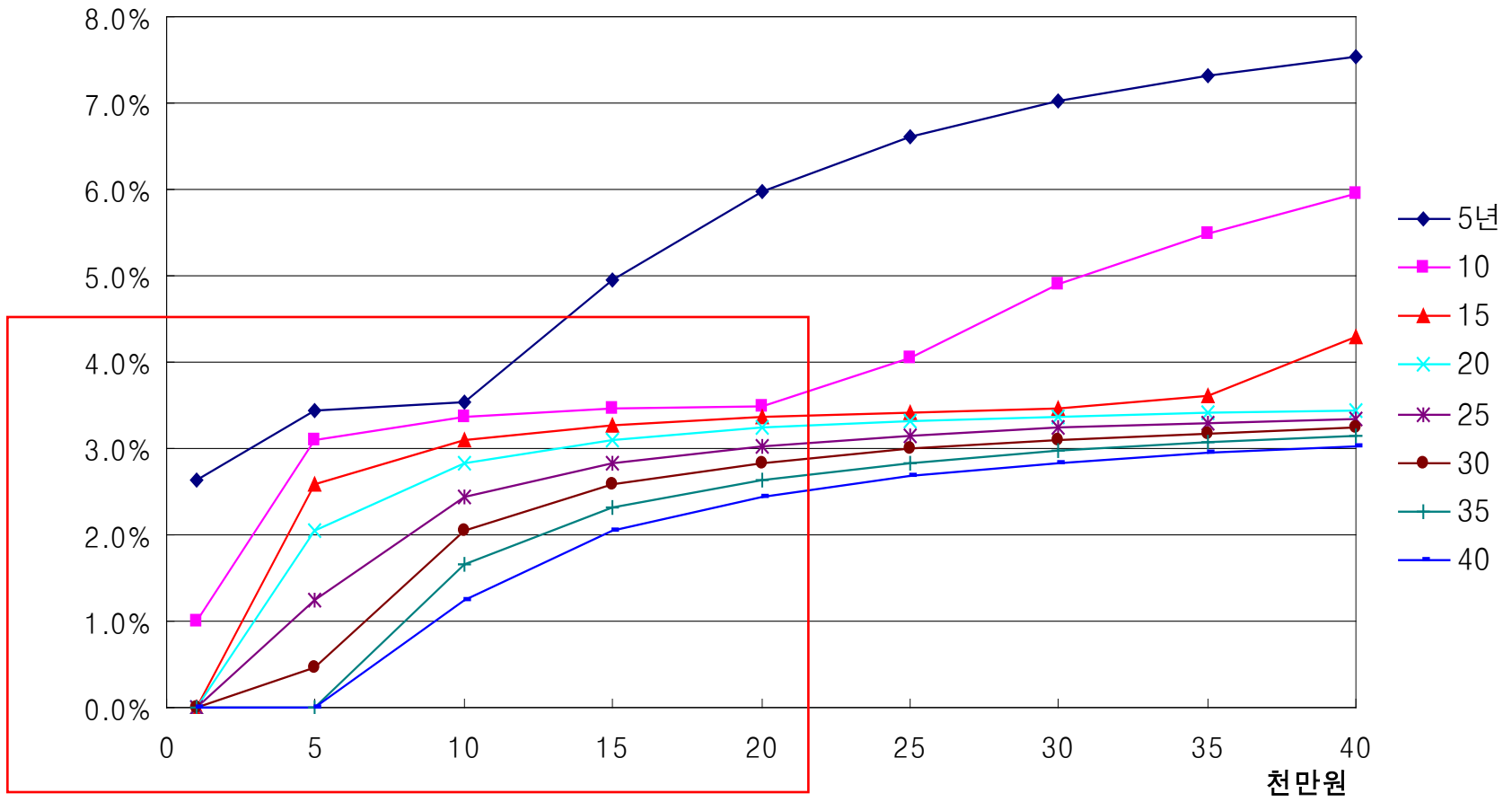
퇴직연금 유입액과 퇴직급여 지급 비율



자료: 금감원

주 : 퇴직급여 지급액/(퇴직연금 정기납입분 + 가입자 추가부담분 + 제도전환분 + 적립금 운용손익)

퇴직일시금에 대한 세금[예시]



소득공제 한도 증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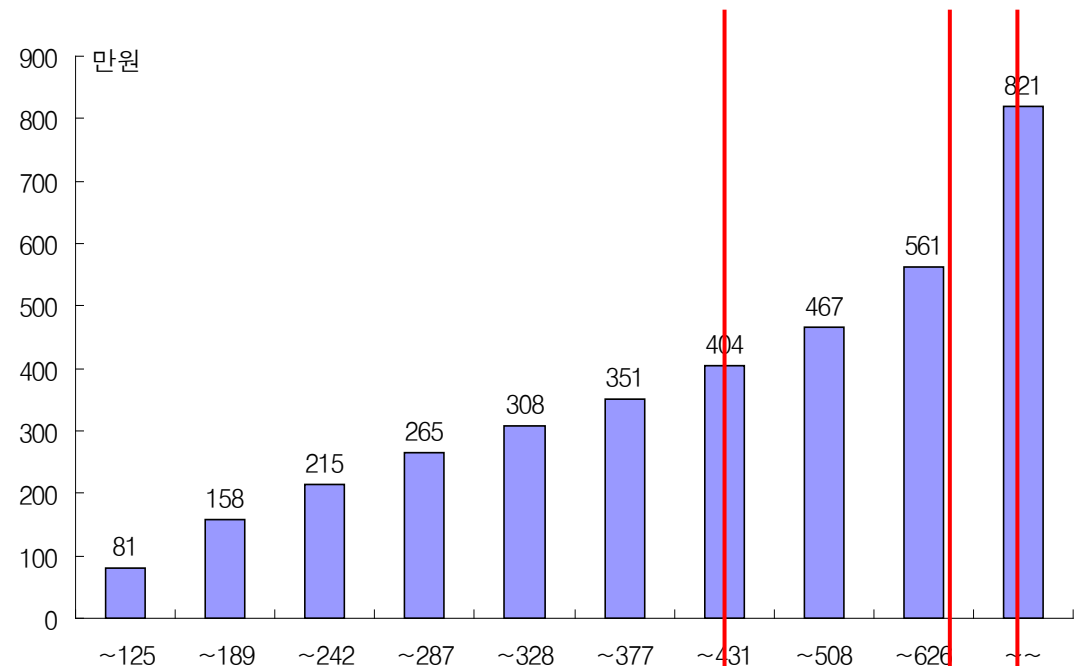
❖ 소득공제 한도 증액

- 1개월 소득+400만원
→ 1개월 소득+800만원

❖ 고령자에 추가 납입 허용

- 예를 들어 50세 이상.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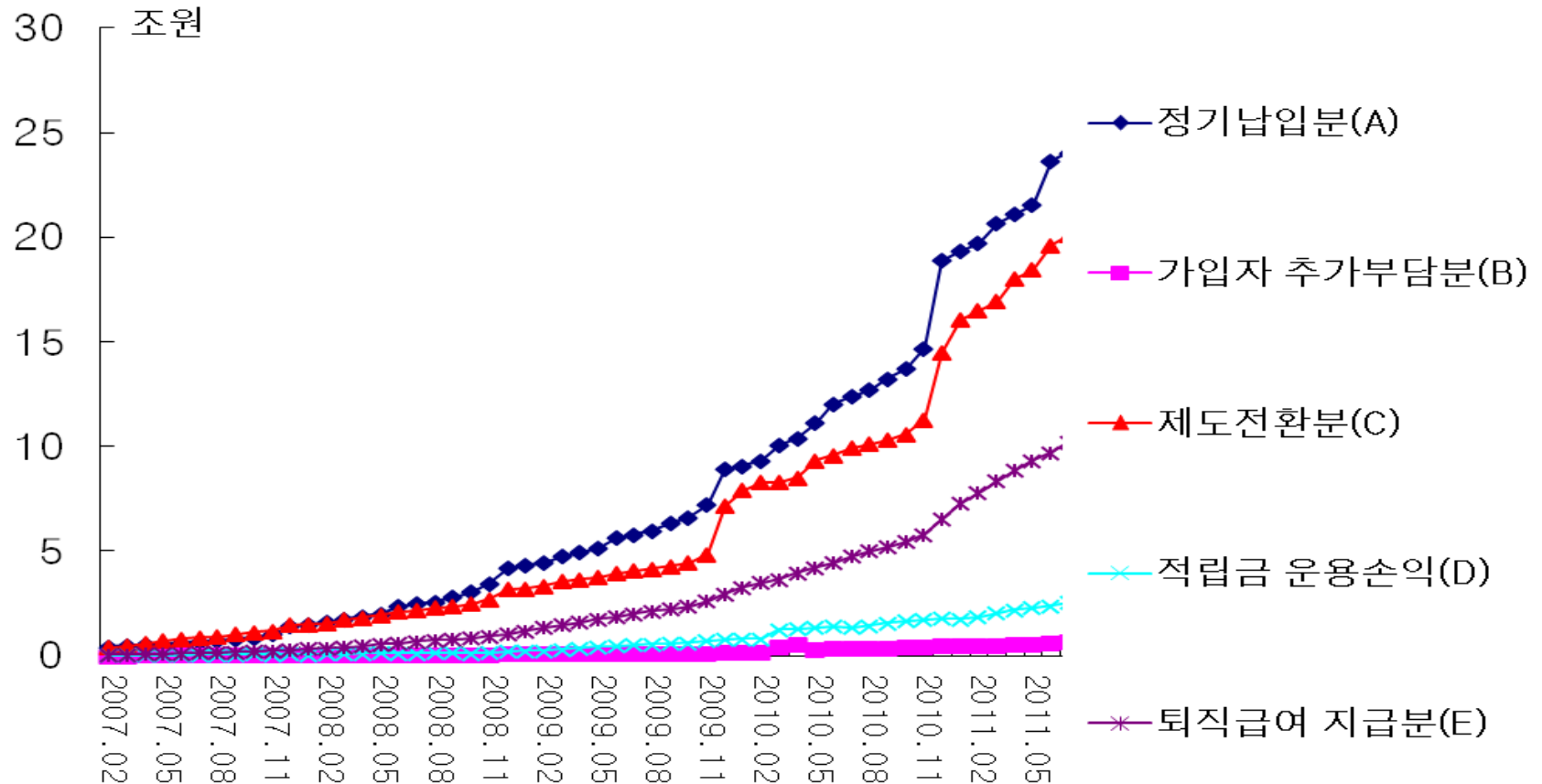
10분위별 월평균 소득과 경계값



자료: 통계청

주 : 가구별 월 소득 기준 (2010), 전체 평균: 363만원

적립금 구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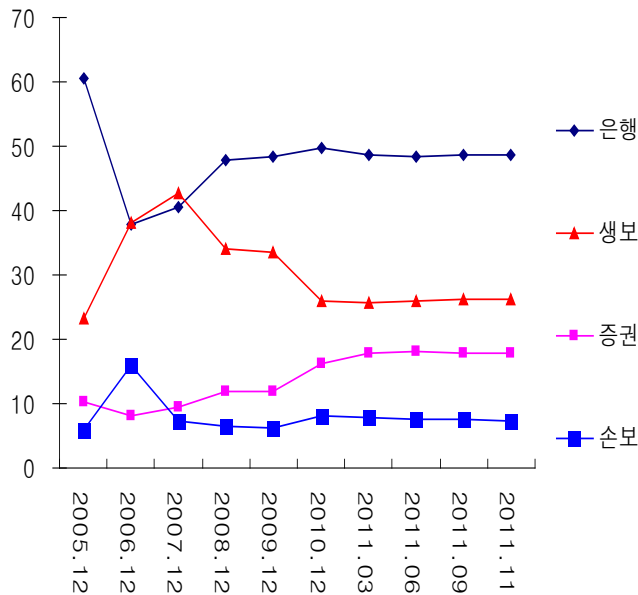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

시장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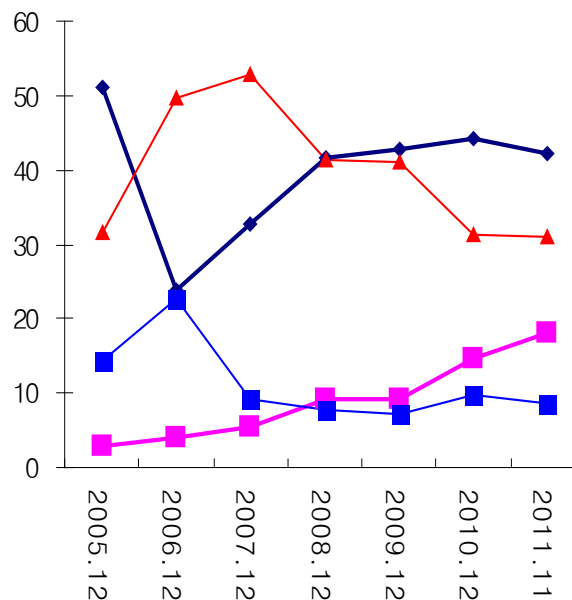
❖ 은행이 50% 가까운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

- DC형 시장에서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음
- 중소기업 시장에서 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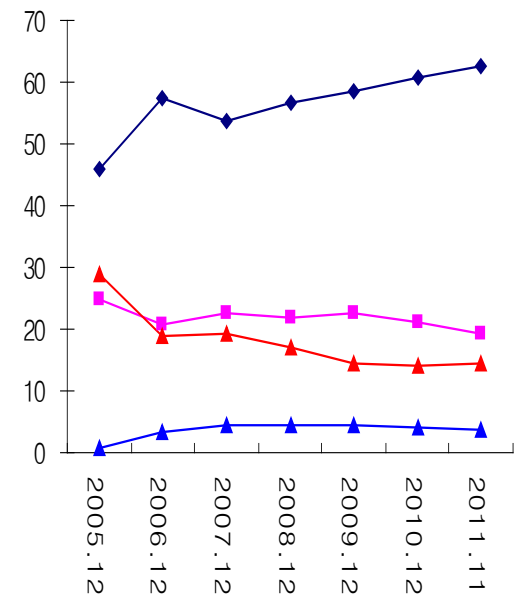
전체



DB



DC



주 : 운용관리계약 자산기준
자료: 금융감독원

금융기관별 평균가입자수와 적립금(2011년 10월말)

❖ 은행이 중소기업에 강한 면을 보이고 있음

- 가입기업당 가입자 수는 29명으로 타업권에 비해 적으며, 적립금도 1.6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음
- 대기업이 집중되는 DB형의 경우에도 가입기업당 가입자 수는 54명으로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
- 적립금 총액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, DB형에서 은행의 적립금은 11조 7,801억 원으로 생보사 적립금 8조 8,218억 원의 1.34배이지만, DC형에서 은행의 적립금은 4조 3,886억 원으로 생보사 적립금 1조 451억 원의 4.20배에 이름

(단위: 명, 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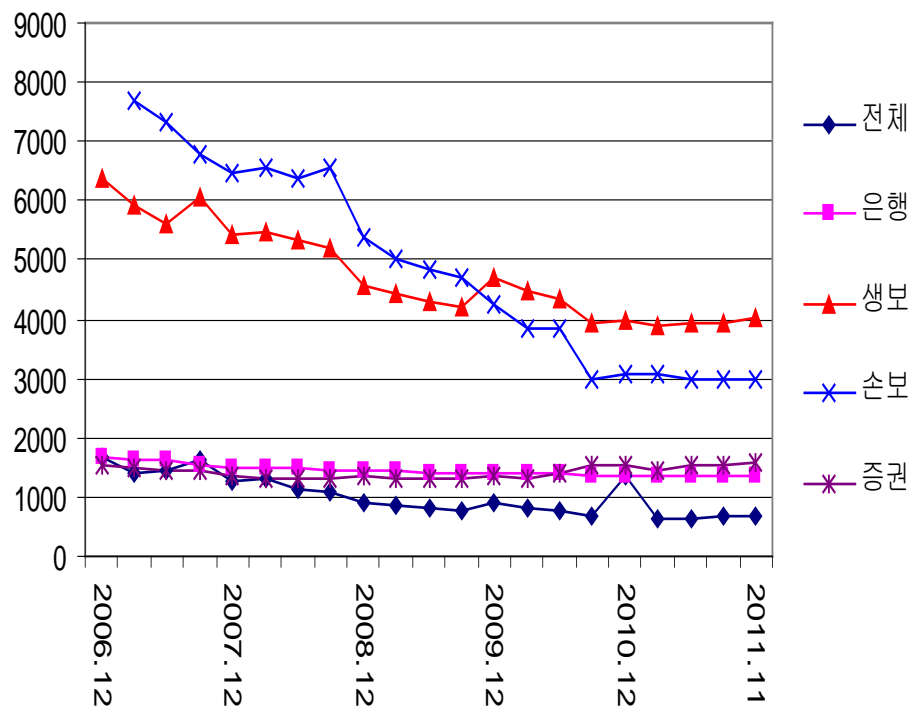
| | DB형 | | DC형 | | IRA형 | | 전체 | |
|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|
| | 가입자 | 적립금 | 가입자 | 적립금 | 가입자 | 적립금 | 가입자 | 적립금 |
| 은행 | 54 | 2.3 | 14 | 1.0 | 4 | 1 | 29 | 1.6 |
| 생보 | 336 | 17.7 | 18 | 1.9 | 6 | 3 | 151 | 8.7 |
| 손보 | 494 | 19.5 | 30 | 2.1 | 68 | 49 | 265 | 11.4 |
| 증권 | 693 | 25.0 | 21 | 2.9 | 125 | 109 | 219 | 10.1 |

주 : 운용관리기관 기준이며, 기업체수로 가입자수와 적립금을 나눈 값임
 자료: 금융감독원

❖ 전체적으로 경쟁이 치열함

- 생보사의 경우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
- 은행의 경우 상위 5사의 비중이 비교적 균등함

허핀달 인덱스



상위사 시장점유율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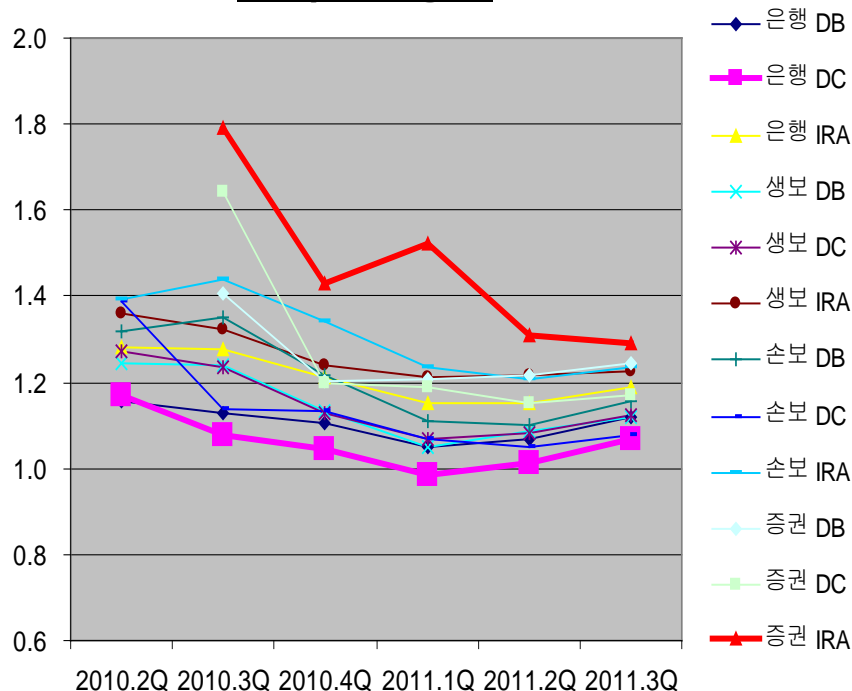
| 은행 | 생보 | 손보 | 증권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19.2 | 59.8 | 23.2 | 28.0 |
| 17.9 | 16.8 | 14.2 | 18.7 |
| 17.8 | 9.9 | 4.4 | 10.6 |
| 54.8 | 86.6 | 41.7 | 57.2 |
| 13.1 | 5.0 | 4.3 | 9.8 |
| 8.8 | 2.7 | 2.9 | 8.0 |
| 76.7 | 94.2 | 48.9 | 75.0 |

주 : 운용관리계약 자산기준, 2011년 10월 기준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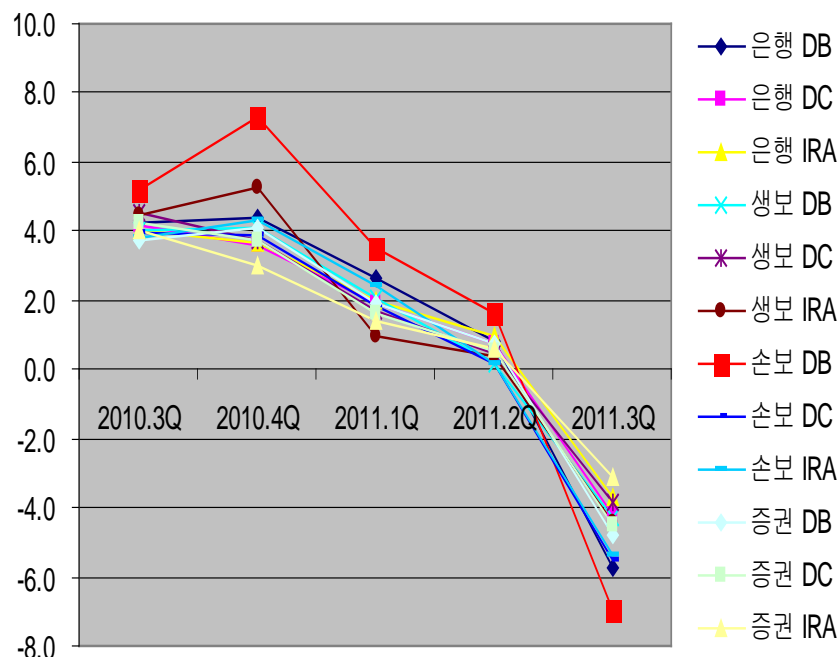
퇴직연금 수익률

- ❖ 원리금 보장형 : IRA형과 증권사의 수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남
- ❖ 비원리금 보장형 : DB형이 다소 높아 보이나, 뚜렷하지 않음
 - 2011년 하반기 마이너스 수익률

원리금보장형



비원리금보장형



자료: 각 업권 협회 공시자료

수수료 (2011년 12월)

❖ 규모별, 업권별 차이가 있음

- 적립금이 2,000억 이상 대기업의 DB형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0.20 ~ 0.70%에 이르고 있음
- DC형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0.45% ~ 0.80%에 이름
- 개인형 IRA형의 수수료는 전액 가입자가 부담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음

(단위: %)

| | | 은행 | 생보 | 손보 | 증권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DB | 2000억 이상 | 0.20~0.48 | 0.30~0.70 | 0.30~0.45 | 0.20~0.40 |
| DC | 2억 이하 | 0.70~0.80 | 0.45~0.75 | 0.45~0.75 | 0.58~0.65 |
| IRA | 개인형 | 0.40~0.50 | 0.60~0.80 | 0.55~1.10 | 0.35~0.60 |

주 : 업권별 운용관리계약 기준 1위~5위의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의 합계이며, 보험권의 경우 상품관리 수수료를 더함
 자료: 퇴직연금사업자 공시 자료 (2011년 12월 기준)

시장 쟁점

- ❖ 불공정 경쟁
 - 서비스 우위
- ❖ 계열사 밀기
 - 소비자의 선택
- ❖ 자사 상품 편입 비율 규제
- ❖ 금융기관 vs 공단
 - 수익률, 수수료 → 대리인, 지배구조
- ❖ IRP (DC형) 활성화 가능성 높아짐
 - 근퇴법 개정으로 이전 강제화
 - 해지 방지 장치 미약
 - 금융기관간 경쟁 관계 변화
- ❖ 모집인 위탁 허용